

## 로코코 시대 크라바트의 우아미에 관한 연구

정미진

승의여자대학 패션디자인 전임강사

### 요약

오늘날 남성복에서 품위와 개성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아이템인 넥타이는 17세기 크라바트에서 시작되었다. 크라바트는 현대 타이의 전신으로 남성의 미적 센스를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복식 미적 접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의상의 복식미는 다른 조형예술에 비해 실용성이란 목적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실용적 목적을 지나 치장하는데 무게를 둔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의상의 복식미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다. 그러나 패션소품으로 중요한 위치의 넥타이의 미적 특성을 연구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미적 범주로 나뉜 특징의 미를 넥타이에 결부시켜 연구한 자료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성복의 비중있는 장신구인 넥타이의 전신인 크라바트의 우아미를 연구하는 것은 장신구의 의상 소품으로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데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7세기 발생된 크라바트의 종류와 변천을 알아본다. 둘째, 크라바트의 미적 범주를 알아봄으로써 패션소품이 의상에서 지니는 비중을 알아본다. 셋째, 로코코 크라바트의 미적 특성과 우아미를 살펴봄으로써 미학적 측면과 패션소품이 결부 되어 지니게 되는 그 예술적 가치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의상의 변화에 따라 늘 변천해왔던 크라바트의 종류와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패션소품이 의상 못지않은 민감한 유행 주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크라바트도 시대의 의상처럼 미적 범주가 적용됨을 확인하여 패션소품의 중요성을 재조명해 보았다. 셋째, 로코코 시대의 크라바트의 조형성이 어떻게 우아미와 연결되어 있는 알아봄으로써 미학적 측면과 패션 소품이 결부되어 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제어: 넥타이, 크라바트, 로코코 시대, 우아미, 복식미학, 예술

이 논문은 2011년도 승의여자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1년 2월 15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3일

교신저자: 정미진, M6342156@sewc.ac.kr

## I. 서론

오늘날 남성복에서 품위와 개성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아이템인 넥타이는 17세기 크라바트에서 시작되었다. 크라바트는 17세기에 등장하면서 점차 남성 예복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로코코 시대로 들어와서는 남성 예복 중 가장 화려한 포인트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현대 남성복은 과거에 비해 종류와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이에 발맞추어 패션 소품도 훨씬 과거에 비해 디자인과 종류가 다양해졌다. 과거의 크라바트는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엄을 나타내는데 의미를 많이 두었으나 현대에서는 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나타내는데도 넥타이가 큰 역할을 한다.

크라바트는 현대 타이의 전신으로 남성의 미적 센스를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복식미적 접근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의상의 복식미는 다른 조형예술에 비해 실용성이란 목적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실용적 목적을 지나 치장하는데 무게를 둔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의상의 복식미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다. 그러나 넥타이가 남성 패션소품으로 중요한 것에 비해 미학적 접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성복의 비중있는 장신구인 넥타이의 전신인 크라바트의 복식미인 우아미를 연구하는 것은 장신구의 의상 소품으로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데 의미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크라바트에는 어떠한 형태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크라바트의 미적 범주가 우아미로 표출되는 것이 타당한지 알기 위해 우아미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셋째, 로코코 시대의 크라바트의 조형성은 어떠하며 이는 어떻게 우아미와 결부되었는가?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

상의 변화에 따라 늘 변천해왔던 크라바트의 종류와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패션소품도 의상처럼 민감한 유행주기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한다. 둘째, 크라바트도 시대의 의상처럼 같은 미적범주가 적용됨을 확인하여 패션소품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셋째, 로코코 시대의 크라바트의 조형성이 어떻게 우아미와 결부되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예술양식과 패션 소품의 불가분의 관계를 재조명해 본다.

연구의 범위는 크라바트가 장식적 의미에서 처음 입혀지기 시작한 17세기부터 넥타이로 명칭이 바뀌게 된 19세기 말까지 크라바트 변천과 종류를 알아보고 로코코 시대의 크라바트의 종류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로코코의 사회적 배경

17세기에 이어 18세기는 루이 14세가 문학, 예술, 과학을 적절히 사용토록 하여 프랑스를 유럽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함에 일조하였다. ‘태양의 왕’이라 불리운 루이 14세가 사치와 향락으로 재정난을 부추긴 채 1719년 사망하자 어린 루이 15세를 오를레앙공이 섭정하면서 국가기관이 약화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시기는 절대적 권위의 왕권 통치가 약화되고 귀족 세력의 사치와 방탕, 통치자들의 무능으로 국가의 기강과 정치적 우의보다는 향락이 만연한 풍조가 조성되었다.<sup>1)</sup> 귀족과 성직자로 대변되는 특권층은 사리사욕을 채우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사치와 향락적인 생활을 만족하게 해줄 직물과 실내장식이 필요했다. 이는 고품질의 직물 생산의 진행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루이 14세 이후의 전쟁과 특권층에 대한 면세제도 등으로 경제난을 맞이하게 되어 이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했

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숙련 공을 데려와 국내에 기술을 전수하는데 주력하고 높은 수입관세를 책정하였다. 또한 영국의 직물산업을 근간으로 한 경제발전은 산업혁명을 이루게 했으며 보다 기계화되고 능률적인 방직기를 제조하게 되었다. 이는 직물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근대 복식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

루이 15세 때 전성기를 이루었던 로코코 양식은 바로크 양식 위에 더욱 섬세하고 여성스럽게 꽃피우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상류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한 사교계 예술과 계몽주의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개인의식과 형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예술가, 학자, 철학자들은 틀에 박힌 궁중에서 벗어나 살롱에 모여 토론 중심 문화를 구축해 나가게 되었다.<sup>2)</sup> 바로크 시대의 궁정중심의 권위적인 문화가 점점 수그러지면서 규칙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주관적이고 자유분방한 감상 문화를 더 추구하게 되었다. 살롱문화를 바탕으로 로코코 예술은 보다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실내장식, 복식, 직물의 패턴에도 반영되었다<그림 1>.<sup>3)</sup> 로코코 시기에는 베르사이유 궁 이후로 주로 귀족들의 사육이 많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구조적으로는 바로크 양식을 지속시키면서도 토론을 하고 사적인 모임을 갖는 살롱 문화의 영향으로 방의 크기가 작아지고 인테리어 장식 등을 보다 섬세하고 여성적으로 치장을 하게 되었다.<sup>4)</sup> 이는 실내장식을 목적으로 한 직물의 디자인 및 재질의 발달을 가져 오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리드미컬하고 섬세한 로코코 건축양식과 직물의 발달은 복식 조형에도 영향을 미쳐 바로크 시대의 웅장하고 딱딱한 복식 조형에서 디테일이 많고 자유로운 곡선의 복식 조형을 갖추게 되었다. 패션 소품도 예외는 아니어서 남성의 크라바트도 화려하고 섬세한 레이스 바탕에 러플 형식을 띠는 조형적 요소를 보이게 된다.



<그림 1> 로코코 시대 공예, 1765  
(출처: 「세계 미술대전집」, 1982, p.134)

## 2. 직물과 문양

로코코 시대는 루이 15세 즉위 이후 새로운 기술과 생산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생산속도가 10배나 빨라지고 폭도 두 배나 크게 생산할 수 있는 기계화된 방직기와 직조기의 발명이다. 공장에서 제작된 직물은 복식과 실내장식, 벽걸이 천, 판넬 등에 사용되어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디자인의 발달도 가져왔다.

프랑스의 직물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탈리아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견직물 공장을 세워 제작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리옹은 명실공히 견직물 생산지의 중심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탈리아의 견직물의 명성을 능가할 수 있는 금과 은사를 섞어 제작한 독창적인 직물 때문에 전 유럽에서 프랑스의 직물은 급부상하게 되었다. 견직물의 중심지인 리옹이 텍스타일 디자이너와 새로운 디자인의 중심지가 되자 디자인 소유권을 인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변국가의 모방을 막으려 했다. 레이스는 프랑스에 소개된 17세기 이후로 리본 직기가 자동화되면서 대량생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귀족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고 레이스의 직조법이 한층 개량되어 복식뿐만 아니라 침장류, 인테리어 소품에도 널리 이용되었다. 직물의 소재는 견직물과 더불어 면직물이 유행하였는데 날염기술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전 시대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면직물이 유행하자 정부에서는 그 수입과 생산에 규제를 가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이는 고가로 면직물이 거래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날염기술의 발달과 함께 염료의 색상도 이전보다 다양하고 세련되어졌다.

1720년 아이작 뉴턴(Issac Newton, 1642~1727)이 빛의 3원색을 알아냈고 색을 혼합하는 원칙도 정립되어졌다. 이러한 색의 발견은 직물업자에게 수많은 색의 혼합법을 공급하였고, 이 결과 18세기의 색채는 17세기의 어두운 색조에 비해 고명도의 부드러운 색조를 많이 사용하며, 상당히 세련되었다. 당시 유행색으로는 여성적 느낌의 파스텔 톤으로 옅은 장미색과 옅은 청색, 빛바랜 녹색, 자색, 노란 색계통의 황색이 주를 이루었다. 루이 15세 시대의 대표적 유행색은 붉은색, 갈색, 푸른색이었고, 루이 16세 때에는 갈색에 보라색이 섞인 색이 유행하였다.

18세기에 처음 탄생한 색으로 감청색(prussian blue)가 있는데 인디고의 사용과 함께 새 합성 안료법에 의해 생겨났으며 진보, 빛, 꿈과 자유의 색으로 상징되어 의상의 원단과 회화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18세기에 적색과 함께 유행된 푸른색은 원래 12, 14세기부터 성모 마리아 왕의 색으로써 유럽인의 대표적 색상으로 유행했다. 문양으로는 감각적인 시대의 정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꽃문양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17세기보다 스케일이 작아지고 모티브도 작은 형태의 S자의 패턴이 주류를 이루었다<그림 2>.)

이렇게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이 유행하게 되자 많은 화가들이 텍스타일 디자이너로도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밑그림을 그려주고 직공들이 직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협동하여 진행되기도 했다. 문양의 주제는 정원, 꽃다발, 나비, 리본, 작은 가지 등으로 작아진 스케일에 걸맞게 환상적이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로코코 특유의 화사

하고 섬세한 문양이 주종을 이루었다.<sup>6)</sup> 모티브는 꽃의 실제 사이즈대로 표현하여 크기나 모양이 사실적인 것이 많았으며 여러 종류의 꽃이 부우케로 묶여 풍성하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문양에서 동양의 영향으로 시노와즈리(Chinoiserie)풍이 유행하였는데 전원풍경, 건축물, 생활 풍경 등을 입체적인 꽃의 묘사와 함께 수놓아졌다. 로코코 시대는 꽃의 시대라 할 만큼 인테리어 직물, 의복 직물 등 광범위하게 꽃 모티브가 애용되었는데 이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연과의 일치, 개인주의적 취향,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식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동양의 영향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온 백합과 국화, 동백꽃이 텍스타일 모티브로 디자인 개발된 것도 이 시기이다. 보다 다양한 꽃 모티브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이 당시 간행된 식물도감을 참조하기도 하였다.<sup>7)</sup>



<그림 2> 로코코 텍스타일, 1740  
(출처: 『Textile Designs』, 1991, p.391)

### III. 크라바트의 역사와 종류

#### 1. 크라바트의 역사

크라바트(cravat)란 현대의 넥타이의 전신으로 목 둘

레에 감아 앞에서 맺는 폭이 좁은 띠모양의 천의 총칭)이다. 크라바트란 단어는 크로아티아(Croatia) 지역 이름이 붙어식으로 변천되어 생긴 말로 인정된다.

크라바트의 기원은 보온, 위생적 기능에서의 기원과 장식적 의미에서의 기원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미 기원전 3세기부터 테라코타(terra cotta) 전사들이 중국 진시 황제와 함께 묻혔는데 1974년 발굴된 7500명의 전사 목에 모두 목수건이 둘러져 있었다<그림 3>.<sup>9)</sup>



<그림 3> 진시황 병사 목수건, 기원전 3세기  
(출처: 『Ties』, 1998, p.22)

또한 서양에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로마 전사들이 포칼(focale)이라는 스카프 형의 넥웨어(neckwear)를 보온과 위생의 목적으로 둘러쓰며 기원후 200년경 로마의 트라잔(Trajan's) 기둥 부조에도 포칼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초기 넥타이들은 주로 운동량이 많은 군인들의 목에 둘러쓰는 데에서 혹독한 날씨에 견딜 수 있는 기능적(보온, 위생적) 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순수 장식적 기능에서 넥웨어의 기원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1650년경 30년 전쟁에서 돌아온 프랑스 장교들이 크로아티안(Croatian)의 목수건을 응용한 것에 기원을 들 수 있다.<sup>10)</sup> 크로아티아 병사들의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 사각형의 수건을 대각선으로 접고 반복해 접어 좁고 길게 만든

후 목에 감아 나비매듭을 했다고 한다.<sup>11)</sup> 1650년경부터는 30년 전쟁에서 돌아온 프랑스 장교들이 당시에 유행했던 러프 칼라(ruff collar) 대신 크로아티안 목수건을 두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림질, 표백, 풀먹이기 등의 손이 많이 가는 러프 칼라보다 훨씬 간편하며 장식적인 면에서도 돋보이는 점에서 선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찰스 2세(Charles II)는 영국에 이 스타일을 소개했고 1세기가 안되어 미국에도 퍼지게 되었다. 또 하나는 크라바트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남성의 리넨(linen)과 레이스(lace) 칼라를 함께 묶는 의미에서 온 것이라는 설이나 그것이 어떠한 경로로 프랑스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증거가 없어 전자가 더 크라바트의 기원으로 유력하다. 30년 전쟁 때(1618~1648)에 참가한 프랑스 군인들이 크로아티아 출신 프랑스 동맹군들의 목수건에 매혹되어 이를 프랑스로 들여온 것이 크라바트의 시초가 되었다.

## 2. 크라바트의 종류

크라바트는 17세기부터 장식적 의미에서 시작되면서 점차 시대가 바뀔에 따라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져 갔다. 본 논문에서는 크라바트의 변천을 서양복식사 분류 시대에 따라 바로크, 로코코, 엠파이어, 로맨틱, 크리놀린, 버슬-아르누보, 현대로 구분하여 그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바로크 스타일(Baroque style: 1600~1700년)

#### (1) 크라바트(cravat)

17세기에 처음 등장하여 현대 넥타이의 모태가 된 이 넥웨어는 1650년부터 그 명칭이 지속된다 <그림 4>. 직사각형의 긴 타월을 목에 둘러 감은 후 나비매듭으로 하거나 실크리본이나 밴드 줄로 묶은 스타일로 이 리본의 색은 붉은색이나 검은색이 주로 착용되었고 푸른색이나 초록색도 다소 착



<그림 4> 크라바트, 1659  
(출처: 『Ties』, 2000, p.16)



<그림 5> 스타인커크, 1693  
(출처: 『Ties』, 1998, p.23)



<그림 6> 넥클로스, 17세기말  
(출처: 『Ties』, 1998, p.265)



<그림 7> 스타크, 1742  
(출처: 『Ties』, 1998, p.34)

용되었다. 소재는 머즐린, 캠브릭(cambric), 리넨이 많이 쓰였다.

### (2) 스타인커크(steinkirk)

17세기 말 1692년 스타인커크 전쟁에서 그 명칭을 따온 넥웨어로 길이가 6피트나 되는 넥클로스를 목에 여러 번 감은 후 끝을 꼬아 상의 여섯 번째 단추 구멍에 넣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5>. 프랑스 장교가 전쟁 중 새벽 공격을 받고 황급히 넥웨어의 끝을 단추 구멍에 틀어넣은 것에서 그 스타일과 명칭이 유래한다고 한다. 소재는 면, 마, 견을 주로 사용했다.

### (3) 넥클로스(neckcloth)

17세기 말 긴 레이스 크라바트의 유행이 지나면서 대신한 종류로 길고 좁은 리넨이나 머즐린의 끝단이 술이나 레이스로 장식되었고 목에 둘러 매듭진 후 그냥 가슴에 늘어뜨리거나 스타인커크처럼 단추 구멍에 낄 수 있다<그림 6>. 길이가 거의 6피트에 폭이 13 1/2 인치고 레이스 장식 부분은 7 1/2인치의 길고 넓은 천으로 소재는 면, 마, 견이 쓰였다.

### 2) 로코코 스타일(Rococo style: 1700~1788년)

#### (1) 스타크(stock)

1720년경 배그 위그의 머리 스타일과 함께 입혀진 넥웨어인데 직사각형의 흰 리넨 천을 촘촘히

주름잡아 납작한 태입같은 천에 끝을 부착시킨 후 목 뒤에서 조여주고 고정시키기 위해 스타크 버클(buckle), 단추, 태입(tape) 등이 사용되었다<그림 7>. 이 스타크 위는 주로 검은색의 리본으로 장식했는데 이를 솔리테어(solitaire)라 한다.

#### (2) 솔리테어(solitaire)

18세기 영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루이 15세 황실에서 매우 유행했다. 이 유행은 머리를 뒤로 묶는 검은 리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머리를 묶던 리본이 가슴 앞으로와 흰 스타크나 자보 위에 리본으로 묶이게 되었다<그림 8>. 배그 위그(bagwig)와 함께 입는 형과 따로 입는 형이 있었는데 주로 함께 입는 형이 많았다. 흰 스타크 위에 있는 검은 리본이 있는 모습에서 솔리테어란 이름이 나왔다.

#### (3) 자보(jabot)

장식성이 많고 화려한 레이스로 주름을 잡아 목을 장식하는 형태로 로코코 중기부터 유행하였으며 레이스를 앞으로 여며 늘어뜨리거나 뒷목에서 여민 후 솔리테어와 같이 입혀지기도 했다<그림 9>. 매우 화려하고 우아한 스타일로 로코코 남성 장식구의 대표적인 형이다.

#### 3)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 1789~1815년)

1780~90년대의 넥웨어(neckwear)는 17세기 후반의 크라바트의 형태가 다소 바뀌어 다시 유행했는데



<그림 8> 슬리테어, 1725  
(출처: 『Ties』, 1998, p.30)



<그림 9> 자보, 18세기  
(출처: 『The Book of Ties』, 1994, p.29)



<그림 10> 정사각 넥웨어, 1800  
(출처: 『The Book of Ties』, 1994, p.33)



<그림 11> 솔 크라바트, 1840  
(출처: 『Ties』, 1998, p.50)

무늬 없는 흰색이거나 색상이 들어가지도 했다<그림 10>. 정사각형의 천을 대각선으로 접어 삼각형을 만든 후 다시 여러 번 접어서 밴드형으로 만든 후 목에 한번 감아 앞을 보우 모양으로 묶었다. 이 넥웨어는 크라바트라고도 불리웠고 넥웨어라고도 불리웠다.

4)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 1816~1848년)

19세기에 유행한 솔 크라바트(shawl cravat)는 미리 매듭을 만들어서 착용할수 있도록 파는 크라바트로 당시 유행했던 솔 웨이스트(shawl waistcoat)에 같이 착용하는 형이다<그림 11>. 솔 크라바트는 상당히 방대하여 편으로 셔츠 앞에 고정시켜 입었다.

5)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 1848~1870년)

1840~50년대의 크라바트는 좁고 작아짐에 따라 매듭에 관심의 초점이 가게 되었다. 점차 이 작은 형의 크라바트는 넥타이라 불리게 되었다<그림 12>. 좁은 넥타이는 여러 종류로 매는 법이 생겼고 다양한 색상과 종류의 넥타이 생산을 가중시켰다. 좁은 타이와 풀을 먹여 미끄러운 칼라는 서로 고정되지 않아 후크(hook)을 다는 법이 고안되었다. 넥 밴드(neck band) 밑에 달아 셔츠 칼라 밑에 끼우는 형이다. 이것을 후드 넥타이(hooked necktie)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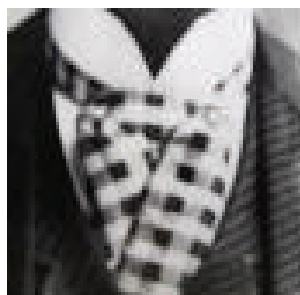
<그림 12> 후드 넥타이, 1868  
(출처: 『Ties』, 1998, p.78)

6) 버슬 · 아르누보 스타일

(Bustle · Art Nouveau style: 1870~1910년)

(1) 에스코트(ascot)

1890년경 나와 영국의 에스코트 경마장에 모이는 신사의 복장에서 연유하여 매기 시작한 스카프 처럼 폭이 넓은 타이틀 가리킨다<그림 13>. 목 언저리에 폭 넓게 편 후 중앙을 편으로 고정시킨다. 소재는 면, 마, 견이 주로 쓰인다. 1777년부터 매 4월마다 열리던 에스코트 경마에서 그 명칭이 유래하는 이 매듭은 현대까지 지속되는 널리 쓰이는 것 중의 하나이다. 넓은 두 개의 날이 가슴에 길게 교차하는 이 스타일은 주로 결혼식, 격조 높은 경마장 등 특별한 기회에 입는다.



<그림 13> 에스코트  
(출처: <http://myhome.netsgo.com>)

(2) 보우 타이(bow t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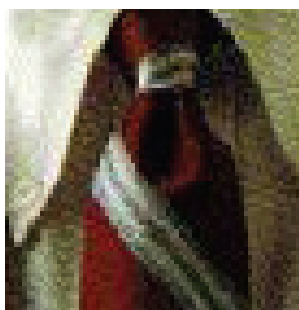
<그림 14> 보우 타이  
(출처: <http://myhome.netsgo.com>)

나비 넥타이를 말하며 한 가닥의 긴 끝으로 맺는 것과 볼박이의 보우가 달려 있는 것이 있다<그림 14>.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버터플라이(butterfly) 형은 초기 스타일로 매듭이 작고 보우(bow)가 넓고 끝이 곡선이다. 나비라는 명칭은 1904년 오페라(opera) 마담 버터플라이(Madam Butterfly)의 성공에 의해 붙여졌다. 그 이전의 나비 매듭은 모두 크라바트라 불리웠다. 소재는 면, 마, 견이 많다.

7) 현대(1910~ )

현대 남성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아래로 길게 내려 늘어뜨린 포인핸드(four-in-hand)이다<그림 15>. 영국에서는 더비타이(derby-tie)라 불리고 프랑스에서는 레카트(regate)라

한다. 포인핸드 타이는 실루엣으로 대검에서 중검까지의 모양이 직선인 스트레이트 형, 큰 병과 같이 잘록한 보틀 형, 그리고 약간 잘록한 세미 보틀 형으로 분류된다. 폭에 따라서는 레귤러 타이(regular tie, 폭 8cm 전후), 와이드타이(wide tie, 10cm 이상), 슬림타이(slim tie, 4~6cm)로 분류된다. 면, 마, 견, 모, 합성 섬유 등 다양한 소재를 쓴다.



<그림 15> 포인핸드  
(출처: <http://myhome.netsgo.com>)

#### IV. 로코코 시대 크라바트의 우아미

우아미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로코코 크라바트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후 그 조형성과 우아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우아미

우아(grace)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와 우아를 의미하며 여신의 이름으로(Chites, 또는 라틴어의 Grace) 탄생되면서 오늘날 예술과 철학 용어로 도입되었다.

‘grace’는 시대에 따라 널리 쓰이는 의미가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는데 중세 라틴어에서는 ‘그라티아’란 표현이 현대의 우아 보다는 신의 은총을 상



정하는 종교적인 접근으로 사용되었다.

다시 고대의 ‘우아’와 ‘미’의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한 시대는 신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인본주의 사상으로 접근한 르네상스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어 ‘그라치아(grazia)’가 그러하다. 르네상스 시대에 우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태도와 외모가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며 연출되거나 계획되지 않음을 의미했다. 노인을 그린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 1483~1520)의 초상화<그림 27>도 우아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되었으니 당시의 우아가 미적인 것보다 자연스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위와 경직은 그 반대의 의미로 통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 미의 개념은 미에 우아가 포함되는 개념과 미와 우아를 별개로 대치시키는 개념이 있었다. 미와 우아를 대치시키는 개념에는 미를 완전성, 규칙성, 법칙에의 순응으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이는 우아가 완전히 배제된 형태라 할 수 있다.<sup>13)</sup> 베네데토 바르키(Benedetto Varchi, 1503~1565)는 우아를 미와 다른 것으로 정의했는데 엄밀한 의미의 미는 정신에 의해 평가되는 데 반해 우아는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 했다.

로코코 시대에 들어와서 우아는 여성과 젊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아의 대명사인 장 앙트와네 와토(Jean-Antoine Watteau, 1684~1721)의 그림은 우아를 극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 받았고 우아의 반대개념은 간소, 내뻐이었다. 와토는 환상적이고 꿈꾸는 듯한 느낌을 섬세하고 장식적인 스타일로 표현하였다<그림 28>.

다채롭고 환상적인 색채와 선 그리고 빛의 융합으로 우아하고 섬세한 작품경향을 보였고, 여인의 의상을 매우 섬세한 디테일까지 표현했다.

우아한 형태에 갖추어져야 할 부분은 세밀한 디테일이다. 그러므로 우아와 웅장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졌다. 로코코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우아는 스케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즉 웅장

한 것이 르네상스 시대 우아와 공존했다면 로코코에서는 섬세함만이 우아에 포함되고 웅장한 것은 제외된 것이다.

로코코 시대 이후에는 우아를 보다 심도있게 표현하려는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는데 요한 요아힘 빙켈만(Johan Joachim Winckelmann, 1717~1768)은 우아의 종류를 숭고와 교태, 천진 등으로 세분했다.<sup>14)</sup> “최고의 온유함과 모든 힘의 평정”이라고 우아가 표현되기도 했으며 우아는 ‘눈으로만 감지되며 사람의 얼굴과 움직임 등에만 나타난다’는 주장이 헨리 홈 케임즈(Henry Home Kames, 1696~1782)에 의해 펼쳐지기도 했다.<sup>15)</sup> 앙드레 펠리비앵(Andre Felibien, 1619~1695)은 우아에 관해 미와 우아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정의하고 미는 법칙에 의해서만 즐거움을 주는 반면, 우아는 법칙이 없이 즐거움을 준다고 차이점을 말했다.<sup>16)</sup>

블라디슬로프 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sup>17)</sup>는 미적 범주를 숭고, 우아, 비장, 섬세, 우미, 추, 적합성, 고전적 미, 낭만적 미로 나누었다.<sup>18)</sup>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1697~1764)는 우아미를 자유로운 파상적 곡선운동에 그 특징이 기초한다고 보았다. 우아미의 특징은 주로 여성적인 것과 결부되는데 유연하고 격렬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의 운동감을 느낄 수 있는 운동성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요한 쉐러(Johann C. F. von Schiller, 1759~1805)에 따르면 우아미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것이라 보았다.<sup>19)</sup> <표 1>은 시대별 크라바트의 변천된 종류를 소재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로코코 시대 크라바트의 미적 특성은 로코코 시대, 혹은 그 이후의 학자들이 정의내린 미적 범주와 특성에 기초를 두고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져 본고에서는 로코코 시대에 정의 내려진 섬세한 디테일의 우아, 곡선 운동의 우아, 경직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에 크라바트 우아미를 결부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크라바트의 조형적 특

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곡선, 섬세함, 자연스러움의 우아미와 연결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크라바트의 시대별 변천

시대	크라바트 형태	소재
바로크	크라바트, 스타인커크, 넥크로스	머즐린, 캄브릭, 리넨, 견
로코코	스타, 솔리테어, 크라바트, 자보	견, 레이스, 머즐린
엠파이어	정사각형 넥클로스, 앵크로야블 크라바트	면, 마, 견
로맨틱	스타, 솔 크라바트	면, 마, 견
크리놀린	넥타이	면, 마, 견
버슬·아르누보	넥타이, 에스코트	면, 마, 견, 모
현대	포인핸드	면, 마, 견, 모, 폴리에스터 등 합성섬유, 가죽

2. 로코코 시대 크라바트의 종류 및 조형성

18세기 동안 남성의 넥웨어는 점차적으로 변화했다. 옛날의 명칭이 1770년대 크라바트가 다시 등장함에 따라 다시 새로운 스타일에 적용되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1715년 서거함에 따라 루이 15세가 즉위하여 섭정을 받게 되자 정치적인 것보다는 부르조와 취향의 사치와 향락에 몰두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바로크 시대의 스타인

커크와 대형 크라바트는 섬세함과 여성스러운 성향의 로코코 귀족들의 취향과는 맞지 않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소형 크라바트와 자보이다. 소형 크라바트는<그림 16> 보통 짧은 길이로 앞쪽에서 묶게 되어있고 루이 14세부터 애용된 자보는 뒷목에서 여미게 되어있거나 앞에서 묶어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 화려한 레이스 소재로 만들어졌다.

자보는 단독으로 입기도 하고 솔리테어와 함께 입혀지기도 했다<그림 17>. 솔리테어는 1850년까지 유행하게 되었는데 배그 위그라는 1720-30년대의 유행한 머리형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 머리를 검은 실크 리본(silk ribbon)으로 편리하게 묶은 형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발의 옆머리는 촘촘히 컬(curl)되고 뒷머리는 피그테일(pigtail: 나선형의 검은 리본 케이스에 넣은 머리)로 되었다<그림 18>. 이 명칭은 흰 머즐린 천 위에 검은 리본이 주는 고독한 모습에 영감을 받아 명명되었다. 배그 위그가 가져온 또 다른 유행은 스타이라 불리는 넥웨어다. 좁은 밴드형의 머즐린을 세운 칼라 위에 2-3번 감아 핀으로 뒤에서 고정시킨 형이다. 이것은 배그 위그 머리 스타일과 같이 입혀졌고 머리를 받치는 흰 기둥의 효과를 가져왔다.

스타는 18세기를 통해 포멀 웨어(formal wear)에 입혀졌다. 소형 크라바트, 자보, 스타, 솔리테어 등이 거의 1세기 동안 대형 크라바트의 자리를 점령



<그림 16> 소형 크라바트, 1758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1998, p.302)



<그림 17> 솔리테어와 입혀진 자보, 1764 (출처: 『The Book of Ties』, 1994, p.27)



<그림 18> 스타, 1765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1998, p.261)



<그림 19> 다시커진 크라바트, 1789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표 2> 로코코 크라바트의 스타일별 특성

	형태	색상	소재와 문양
스타	목을 흰 기둥처럼 높게 감싸는 형태.	흰색	리넨, 캔브릭에 주름을 잡는 소재. 문양은 무지, 가로나 세로로 섬세한 주름.
솔리테어	뒷머리를 묶은 천을 앞으로 가지고 와 목 앞에서 묶어주는 형태.	주로 검은색, 흰색, 붉은색, 노란색 등 강렬한 색상도 등장.	소재는 장식성이 강한 실크. 문양은 무지.
자보	앞에서 층을 잡아 늘어뜨리게 되는 형태.	흰색, 아이보리색, 옅은 노란색	레이스, 머즐린, 실크

하였으나 다시 1770~80년 사이 대형 크라바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영국의 마카로니(Macaroni) 족20)들로부터 다시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입을 크라바트는 작은 보우로 묶여졌고 레이스 단으로 되었거나 전체가 머즐린으로 되었다<그림 19>.

이상과 같이 로코코 시대 크라바트를 살펴본 결과 소형 크라바트, 자보, 스타, 솔리테어, 대형 크라바트의 순으로 정리되는데 이 중 소형과 대형 크라바트는 이미 17세기에 나온 상태로 크기만 변화가 있으므로 로코코의 크라바트 우아미로는 자보, 스타, 솔리테어를 중심으로 조형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스타

스타의 형태는 목을 흰 기둥처럼 높게 감싸는 것이 주특징이며 앞부분은 촘촘한 주름을 잡아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했다. 목 뒤에서 고정 시키고 앞에 조임 버클로 다이아몬드나 금·은을 사용하기도 했다. 스타의 색상은 처음에는 리넨이나 캔브릭으로 풀을 먹여 사용했으므로 풀의 색상이 주된 색상이 되어 흰색이 많았다. 나중에 다른 소재를 사용함에 따라 검은색 등도 나오게 되었다. 스타의 처음 소재는 리넨이나 캔브릭에 주름을 잡거나 풀을 먹이는 것이 주된 소재였다. 문양은 무지였고 가로나 세로로 섬세한 주름을 잡았다<그림 7>.

2) 솔리테어

솔리테어의 형태는 뒷머리를 묶은 천을 앞으로

가지고 와 목 앞에서 묶어주는 형이다. 베그 위그라는 머리 형 때문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색상 또한 솔리테어는 흰 스타와 같이 입혀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상대적으로 진한 색으로 대조되게 입었다. 그래서 검은색이 주종을 이루었고 흰 바탕에 홀로 튀는 검은색을 보고 솔리테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후 검은색 외에 붉은색, 노란색 등 강렬한 색상도 등장했다. 소재 및 문양에 있어 솔리테어는 머리를 묶은 소재와 동일하였으므로 장식성이 강한 실크가 주종을 이루었다. 문양은 주로 무지가 많았다<그림 8>.

3) 자보

자보의 형태는 뒷목에서 여미게 되어 있거나 앞에서 층을 잡아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 레이스가 입체적으로 달려 있어 묶었을 때 자연스런 레이어가 형성되어 화려하다. 색상은 레이스를 표현하기 좋은 밝은 색들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흰색, 아이보리색, 옅은 노란색 등이 대표적이다. 소재 및 문양에 있어 레이스가 자보의 주종을 이루고 부분적으로 머즐린과 실크도 사용되었다<그림 9>.

3. 우아미와 로코코 시대 크라바트 조형

앞서 살펴본 로코코 시대 미학자들이 정의내린 곡선, 자연스러움, 섬세함에 기초한 우아미와 크라바트 조형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분석해본다.



<그림 20> 아비 아라 프랑세즈, 18세기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1998, p.257)



<그림 21> 여성스런 로브, 1765 (출처: 『복식미학의 이해』, 2004, p.129)



<그림 22> 로브 아라 레비트, 1783 (출처: 『20000 years of fashion』, 1981, p.297)

### 1) 크라바트의 곡선과 우아미

로코코 시대 영국의 화가인 호가스는 우아미를 자유로운 파상적 곡선운동에 그 특징이 기초한다고 보았다. 즉 계획되고 경직된 직선보다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부드러운 곡선이 우아미를 표출해 내는 근원이라 본 것이다.<sup>21)</sup> 여성의 인체의 곡선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코르셋을 착용하여 허리를 가늘게 조여 섬세하고 가냘픈 S실루엣을 나타내려 했고 의상 네크라인도 U자 형으로 깊게 파서 곡선미를 보여준다<그림 22>. 유기적 곡선의 파상적 꽃무늬의 텍스타일과 장식이 건물이던 실내 장식이던 주류를 이룬 로코코 양식은 의상의 디테일과 라인에서도 곡선을 이루고 이러한 곡선의 조형성은 크라바트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문양으로는 감각적인 시대의 정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꽃문양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17세기보다 스케일이 작아지고 모티브도 작은 형태의 S자의 패턴이 주류를 이루었다<그림 2>. S자는 동적이며 유연한 곡선의 움직임을 잘 나타낸다.

마담 퐁파두르(Madame Pompadour)는 화려한 로코코풍의 의상의 전성기를 이끌어나간 인물인데 그녀는 단지 외적인 화려함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술과 문학 등 지적인 면에서도 내적인 우아함을 추구했다. 로브 아라 프랑세즈는 퐁파두르 부인에 의해 가장 발전되었는데 꽃, 레이스, 리본, 조화,

루프, 플라운스(flounce)등을 스커트 가장자리 부분이나 목둘레에 달았는데 그 조형적 특성은 모두 곡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22>, <그림 26>.<sup>22)</sup>

남성복의 경우도 허리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간 쥐스트코르가 유행하여 이전 시대의 남성복이 남성미를 추구했던 경향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의 헤어스타일도 부드러운 컬을 양옆으로 넣고 리본으로 묶는 부드럽고 여성스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유행했다<그림 16>. 이 컬은 역대 남성 헤어스타일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곡선미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성복도 17세기 후반부터 입혀졌던 쥐스토코르가 18세기로 오면서 공식복으로 아비 아라 프랑세즈로 대체되었는데 그 커프스와 바디스 부분은 모두 화려한 금·은 실이나 보석으로 된 곡선의 문양으로 장식되어 우아미를 보여준다<그림 20>. 또한 남성복이지만 허리를 들어가게 하고 단이 플레어지게 함으로써 곡선적인 느낌을 살려 우아함을 강조했다.<sup>23)</sup>

자보는 하늘하늘한 소재와 레이스로 정형적이지 않은 형태를 이룬다<그림 9>, <그림 17>, <그림 24>. 즉 직사각형으로 떨어지지 않고 층을 이루는 나선형의 곡선을 이룬다. 또한 솔리테어는 스타크 위에 하는 검은색 리본 형태인데 이 역시 둥근 곡선을 이룬다. 층이 진 끝의 자보와 S형의 곡선을

이루는 솔리테어는 유동적 곡선을 나타내므로 로코코 크라바트의 우아미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8>, <그림 17>, <그림 25>.

### 2) 크라바트의 자연스러움과 우아미

르네상스시대부터 로코코시대까지 우아미의 정의로 가장 널리 쓰였던 개념 중 하나가 계획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었다. 로코코 시대 미학자 쉴러는 우아미는 의식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정의했다.<sup>24)</sup> 로코코 시대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장 자크 루소(Jean Jackque Rousseau, 1772~1778)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친 시기로 예술분야에서도 그 현상이 부각되었다.

자연주의 예술사조는 고전파의 엄격하고 형식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전원과 농민의 풍경을 표현하여 현실감 있는 자연미를 추구하게 되었다. 궁중의 격식을 기피하려 했던 왕족들은 자연에서 주는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 전원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 따로 목가적이고 자연스러운 궁을 세워 사적인 시간을 즐기기도 했다.<sup>25)</sup> 이러한 자연스런 이미지의 추구는 의생활에서도 잘 나타났는데 마리 앙트와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가 임신했을 때 입었던 임신복이 일반인에게도 유행하게 된 로브 아라 레비트(robe a la levite)<그림 22>는 당시의 자유스럽고 느슨한 생

활에 맞기에 점차 호응을 얻어 인기를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 이 의상은 보수적인 층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으나 전반적인 당시 풍토가 자유스런 자연미를 추구하게 되자 점차 받아들여진 것이다. 바로크 시대의 장중하고 과도한 장식보다는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와 장식을 추구하게 되었던 로코코 시대의 미의식은 크라바트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바로크 시대의 장방형의 긴 스타인커크는 매우 길이가 길어 단추 구멍에 끼워 넣고도 여분이 남는 스타일로 직선적인 형태를 이루었다<그림 5>. 이전의 크라바트가 길고 직선적이 형으로 나타났었다면 로코코의 크라바트는 끝부분이 이전처럼 직선으로 딱딱하게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듯 착용하게 되었다. 특히 스타크는 촘촘히 잡은 서링이 그 특징이다. 스타크 위에 촘촘히 잡은 주름은 부드러운 불규칙한 선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위적이고 규칙적인 것과 거리가 먼 자연스러운 느낌을 나타낸다<그림 7>, <그림 18>. 그러므로 로코코 시대의 크라바트는 우아미와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

### 3) 크라바트의 섬세함과 우아미

로코코 시대 화가 와토가 그린 의상 로브 볼랑트(robe volante)는 와토 가운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가 와토는 섬세하게 시대 의상을 표현했다. 미학



<그림 23> 로코코 텍스타일, 18세기  
(출처: 『Textile Designs』, 1991, p.421)



<그림 24> 자보, 18세기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1998, p.259)



<그림 25> 솔리테어, 18세기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1998, p.262)



<그림 26> 로브 아라 프랑세즈, 18세기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1998, p.246)

적 측면에서 로코코 시대는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거나 간소한 것은 우아미의 개념에 대치되는 것이었고 지극히 작고 디테일한 것일수록 우아함에 가까운 개념이 되는 것이었다. 로코코 시대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했고 개인주의의 발달은 궁중 문화보다는 여성을 주축으로 하는 살롱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정부를 두는 문화에 더욱 화려하고 자기도취적인 섬세한 곡선의 디테일이 있는 의상을 착용했다.

로코코 시대는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되는데 그 중 초기는 루이 15세의 섭정 시대(1715~1725년), 중기는 루이 15세 친정시대(1723~1774년), 말기로는 루이16세(1774~1792년) 시대로 구분된다. 이 중 중기 시대에 들어가는 루이 15세는 정부를 많이 둔 왕으로 유명한데 궁정의 여인들은 국왕의 눈에 띄기 위해 몸치장을 최대한 화려하고 요염하게 하는데 시간을 투자했다. 국왕의 눈에 든 여인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화려한 의상과 헤어스타일, 장신구를 사용했으며 이는 귀족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장신구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크고 묵직한 것보다는 작고 섬세한 여성스러운 것들이 더욱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그림 26>.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베르사이유(Versailles) 궁은 외장에서는 바로크풍의 장중한 남성미가 주를 이루지만 세부적인 내관과 인테리어는 섬세한 여성미를 띠는 텍스타일과 소품으로 장식되었다<그림 1>.26) 이 시대는 엄격한 궁중에서의 형식적인 예법을 기피하고 귀족들은 사적인 토론을 나눌 수 있고 여성들이 늘 참여하고 주도

권을 갖는 살롱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인사법도 이전시대보다 훨씬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고 감수성을 드러내는 여성적 취향이 현저했다.

이러한 살롱문화의 섬세함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디테일에서도 앙가장트(engageantes)와 같이 소매부분이 나풀거려 부드러운 여성미를 이루는 것을 추구했다<그림 21>.27) 로코코 시대는 꽃의 시대라 할 만큼 인테리어 직물, 의복 직물 등 광범위하게 꽃 모티브가 애용되었는데 이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연과의 일치, 개인주의적 취향,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식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문양의 주제는 정원, 꽃다발, 나비, 리본, 작은 가지 등으로 작아진 스케일에 걸맞게 환상적이고 여성적이 분위기를 나타내는 로코코 특유의 화사하고 섬세한 문양이 주종을 이루었다. 모티브는 꽃의 실제 사이즈대로 표현하여 크기나 모양이 사실적인 것이 많았으며 여러 종류의 꽃이 부우케로 묶여 풍성하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텍스타일 문양에서도 꽃문양이 주조를 이루는데 이전 시대에서의 큰 스케일의 패턴이 아닌 작고 불규칙한 스케일의 패턴으로 보다 섬세한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다<그림 23>.28) 소재의 색상도 원색을 피하고 색상을 혼합하여 저채도의 가볍고 부드러운 색상을 추구해 전 시대보다 부드러운 여성미가 드러날 수 있게 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크라바트는 소재에서 주는 질감부터 레이스와 실크를 사용하는 등 기존의 무지의 리넨과 코튼에 의존하던 방식과는 확연히 차이가

<표 3> 로코코 크라바트의 스타일별 미적 특성과 우아미

대표적 크라바트 분류	조형적 특성 (소재, 문양)	조형적 특성 (색상)	조형적 특성 (형태)	미적 특성	미적범주
스타	리넨, 캠브릭	흰색	촉촉하게 잡인 여러개의 서링	자연스러움	우아미
자보	레이스, 머즐린	흰색, 아이보리색	플레이어지는 곡선의 끝부분	곡선, 섬세함	우아미
솔리테어	실크	검은색, 흰색	S자 형태로 매듭지어지는 리본 모양	곡선	우아미

있게 되었다. 레이스의 문양은 섬세한 여성미를 잘 나타내고 있어 우아함이 드러난다<그림 24>.<sup>29)</sup>

로코코의 대표적인 크라바트라 할 수 있는 자보는 기존의 무지의 리넨 크라바트와는 확연히 다르게 섬세한 레이스와 부드러운 실크로 아기자기한 디테일을 잘 나타내고 있다<그림 17>, <그림 24>. 이는 로코코 복식미의 극치로 여겨질 만큼 남성복을 여성복보다 더 섬세하게 여성미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보는 로코코 시대 크라바트의 우아미를 반영한다.



<그림 27> 라파엘의 작품, 16세기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53942>)      <그림 28> 와토의 작품, 18세기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17013>)

<표 3>은 지금까지 살펴본 로코코 시대 크라바트의 조형 특성과 우아미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스타크는 가늘게 잡힌 주름이 자연스러움을 나타내 우아미와 연결되며 자보는 작은 스케일의 레이스가 여성스런 섬세함으로 우아미와 연결되었으며 솔리테어는 리본의 묶인 곡선이 우아미와 결부되었다.

## V. 결론

이상과 같이 로코코 시대의 남성 장신구인 크라바트를 로코코 시대적 배경, 크라바트의 변천과 종류, 로코코 시대 크라바트의 종류와 형태, 그 미적 특성의 순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17세기 발생한 크라바트는 스타인커크, 넥클로스, 자보, 솔리테어, 솔 크라바트, 정사각형 넥웨어, 혹드 타이의 변천과정을 거쳐 현대의 포인핸드 형이 나왔다. 로코코 의상이 화려해짐에 따라 크라바트도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화려한 스타일인, 자보, 작은 크라바트, 솔리테어, 스타크 등 장하게 되었다.

둘째, 로코코 크라바트의 형태와 종류를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길이와 폭이 줄어든 소형 크라바트와 자보가, 중기에는 배그 위그와 같이 입혀지는 스타크와 솔리테어, 말기에는 다시 커진 크라바트로 변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로코코 크라바트의 미적 특성과 우아미를 살펴본 결과 로코코 시대의 크라바트는 색상으로는 흰색, 아이보리색, 검은색, 붉은색 등이 주조를 이루었고 소재는 캄브릭, 머즐린, 실크, 레이스, 형태는 뒤에서 고정 시키거나 앞에서 층지게 늘어뜨리는 것, 앞에 주름을 잡는 형이 주조를 이루었다. 로코코 시대의 우아미는 파상적 곡선, 자연스러움, 섬세함으로 특징 지워 지는데 자보는 곡선과 섬세함을, 스타크는 자연스러움을, 솔리테어는 곡선을 주로 특징적으로 우아미를 나타낸다. 자보는 여성스러운 레이스와 플레이지는 곡선의 트리밍 부분의 섬세함이 우아미와 연결되고 스타크는 촘촘하게 잡힌 여러 개의 주름의 자연미가 우아미를 나타내며, 솔리테어는 S자 형으로 매듭지어지는 리본의 곡선이 우아미와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

로코코 시대의 크라바트의 우아미를 연구해봄으로써 첫째, 의상의 변화에 따라 늘 변천해왔던 크라바트의 종류와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패션소품이 의상 못지않은 민감한 유행 주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크라바트도 시대의 의상처럼 미적 범주가 적용됨을 확인하여 패션소품의 중요성을 재조명해 보았다. 셋째, 로코코 시대의 크라바트의 조형성이 어떻게 우아미와 연결되어 있는 알아봄으로써 미학적 측면과 패션 소품이 결

부되어 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의 한계로는 과거에 있는 크라바트를 문헌에 의존하다보니 사진자료나 실물자료가 없어서 독립적인 크라바트의 도식화를 확보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로는 현대 넥타이와 과거 크라바트의 조형성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일조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Cleaver, G. (1988). *An Introduction Art*, New York: Harcourt Brace Joanovich, p.251.
- 2) Gowing, L. (1995). *A history of art*, Oxfordshire: Barnes & Noble, p.722.
- 3) 김미정 (1998). *바로크·로코코 미술*, 서울: 시공사, p.72.
- 4) 장문호 (1977). *서양미술사*, 서울: 형성, p.84.
- 5) Meller, S. & Elffers, J. (1991). *Textile Designs*, New York: Abrams, p.420.
- 6) Janrt, A. (1972). *Patterns of fashion*, London: Macmillan Pub., p.45.
- 7) Davenport, M. (1979). *The Book of costume*, New York: Crown, pp.67-69.
- 8) 세계백과사전 제24권 (1975). 서울: 서문당, pp.9-10.
- 9) Chaille, F. (1994). *The Book of Ties*, Paris: Flammarion, p.23.
- 10) Turner, W.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p.142.
- 11) Pane, B. (1986). *복식의 역사*, 이종남 외 옮김 (1988). 서울: 까치, p.399.
- 12) Gross, K. J. & Stone, J. (1996). *Shirt & Tie*, New York: Alfred A. Knopf, p.33.
- 13) 미학대계간행회 (2008).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 서울대출판부, pp.225-229.
- 14)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I*, 서울: 교문사, pp.206-207.
- 15) 위의 책, p.207.
- 16) 위의 책, p.206.
- 17) 다케우치 도시오 편 (1995). *미학. 예술학 사전*, 안영길 외 옮김 (1995). 서울: 미진사, p.213.
- 18) Tatariewicz, W. (1990).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이용대 옮김 (1990). 서울: 이론과 실천, pp.144-228.
- 19) 미학대계간행회. *앞의 책*, pp.65-74.
- 20) Macaronis: 젊은 영국인들로서 유럽 여행 후 이태리에서 본 새로운 복장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
- 21) Breardsey, M. G. (1958). *Aesthetic Valu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pp.41-45.
- 22) Boucher, F. (198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New York: Thames & Hudson, p.71.
- 23) Yarnwood, D. (1992).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London: Batsford, p.89.
- 24) Breardsey, M. G. *앞의 책*, pp.11-13.
- 25) Gardener, L. (1985). *Art through the Ages*, Orlando: Harcourt Brace & Co., p.831.
- 26) 정홍숙, 박형애 (1998).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 직물에 나타난 시늬와즈리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1(-), pp.153-174.
- 27)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247.
- 28) 이경순 (1994). *텍스타일 프린트 디자인*, 서울: 현암사, p.76.
- 29) 홍을미 (1997). *로코코의 직물무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 **A Study on the Grace of Cravats of the Rococo Period**

**Jung, Mi Jin**

Full 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Soong-Eui Women's College

### **Abstract**

The current form of neckties originated from cravats of the 17th century, which respect individuality, allowing men to pursue one's own character and style. When cravats were first introduced to royalty, they were simply considered as one of many fashion accessories, but as time went on, they were worn as a part of formal wear that shows authority. Although the modern day presents more varied and liberal designs for neckties,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the aesthetics of costum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aesthetics of ties and cravats. Thus, it would be meaningful to confirm the weight of ties as a fashion accessory by analyzing aesthetics of cravats that have been developed as ties.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studying the aesthetic characteristic of cravats of the 17th century to understand influences from the aesthetics of costumes and art and prove the importance of fashion accessories as an independent fashion item. Second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hanges in cravats in order to find out the artistic value of cravats as a fashion item. This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e trend of cravats in fashion by reviewing changes of cravats that were influenced based on shifts in fashion. Secondly, this study illuminated the aesthetic value of cravat design beyond the notion of a simple accessory. Lastly, this study proved the firm relationship between aesthetic value and cravat design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the formative aspects and graceful aesthetic of cravats of the Rococo period.

Key words: cravat, Rococo, grace, aesthetics, ties, art